

(KIC중국, 2020.03.26)

□ 中 공신부: 통신 빅데이터 행선지 조회 시스템 국무원 클라이언트 미니 프로그램 출시

○ 코로나19 방제 스케줄 카드가 국무부 클라이언트 미니프로그램이 3월 11일 출시되어 사용하고 있다. 이는 공신부 중국신통원이 3대 통신사와 연합하여 출시한 것으로 중국텔레콤, 차이나유니콤, 중국 모바일 3대 기초 전기통신업체의 통신 빅데이터를 활용해 전국 16억 핸드폰 사용자들에게 일정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당 스케줄카드는 14일 이내에 방문한 국가(지역)와 중국국내 도시(주재 4시간 초과)를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동시에 사용자 자신의 여정을 편리하게 증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기업, 커뮤니티, 교통 부문 등의 스케줄 점검 작업의 효율을 높이고, 업무 재개 과정을 가속화한다.



□ 사용 방법

STEP
1

위챗에서 아래 QR코드 스캔 후 국무원 클라이언트 미니프로그램에 접속합니다.



STEP
2

휴대전화번호,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사용자 동의를 선택 후 '查询'을 클릭합니다.



STEP
3

본인 최근 14일 동선 파악 가능
(만약 14일 이내 후베이를 방문한 적이 있다면 빨간카드, 14일 이내한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한 경우 노란카드이며 그 외 경우는 모두 녹색카드입니다.)

